

국어 기출해설

해설 - 김춘호 교수(종로공무원경찰학원)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에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실패(失敗) ② 시상(施賞):수상(受賞)
③ 판매(販賣):구매(購買) ④ 공격(攻擊):방어(防禦)

1. 정답 ①

출제 영역 문법 - 의미론(반의 관계)

해설 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반의 관계에는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방향 반의어'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로 '상보 반의어'와 '정도 반의어'를 출제했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방향 반의어'를 출제하였다. 따라서 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시문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 즉 방향 반의어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방향성을 이루지 않고 등급에서의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도 반의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시상'은 상장이나 상품, 상금 따위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상'은 상을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③ '판매'는 상품 따위를 판다는 의미를 가지고 '구매'는 물건 따위를 사들인다는 의미이므로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④ '공격'은 나아가 적을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피한다.

2. 정답 ②

출제 영역 비문학 - 화법(토론의 사회자 역할)

해설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화법 영역의 문제이다. 화법의 핵심은 토론, 토의, 대화이므로 각각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의 문제를 규정하고, 순서를 제시하고, 토론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안내한다. 따라서 ②가 사회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토론을 시작할 때 논제를 제시하지만, 타당성 여부에 대해 토론자의 의견을 물어서는 안 된다. ③ 사회자는 청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으나, 대안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④ 사회자는 토론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장과 논거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3. 정답 ①

출제 영역 비문학 - 독해(글쓰기 방식)

해설 지방직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비문학 독해 문제이다. 비문학 독해의 경우 가장 핵심은 내용 파악과 글쓰기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시문은 축산업을 위해 숲을 파괴하는 상황을 ‘25%’, ‘2/3’, ‘1,497만 3,900 ha’ 등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는 ①의 설명이 가장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③ 전문 용어의 뜻을 풀이하는 정의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현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나열하고 있지 않다.

항무원저널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4. 정답 ④

출제 영역 어문규정 - 맞춤법(사이시옷)

해설 맞춤법 중 사이시옷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맞춤법 제30항을 이해하되, 단순 맞춤법 파악뿐만 아니라 예시 단어들의 결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순우리말끼리의 결합인지,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인지를 이해한 뒤 맞춤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말’의 경우 발음 자체가 [인사말]이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넣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노래말(×) → 노랫말(○): 순우리말 ‘노래’와 ‘말’이 결합하여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노랫말’으로 표기한다. ② 순대국(×) → 순댓국(○): 순우리말 ‘순대’와 ‘국’이 결합하여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순댓국’으로 표기한다. ③ 하교길(×) → 하곶길(下校길)(○): 한자어 ‘하교’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하여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하곶길’으로 표기한다.

참고 ※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절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5. 정답 ②

출제 영역 문학 - 현대시(감상 관점)

해설 단순 문학 감상 문제가 아니라, 감상 관점을 바탕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공무원 문학 문제 풀이의 출발은 이론이다.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음을 말하는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②의 경우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을 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감상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작품 자체의 형식과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참고 ※ 박목월, <나그네>

- 해제: '나그네'는 일제 말기 암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열을 상징한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 바 있다. 시대 상황과 연결시켜 볼 때, 비탄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짧은 시행(詩行), 몇 개 안 되는 어휘로 이만한 작품을 만들어 낸 박목월의 언어 경제는 놀라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성격: 관조적, 서정적, 낭만적, 풍류적, 향토적
- 운율: 3음보(민요조)
- 어조: 달관의 어조
- 구성: 변형된 수미 쌍관의 구성
- 주제: 체념과 달관의 경지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을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정답 ①

출제 영역 비문학 - 독해(내용 파악)

해설 비문학 독해 유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파악 문제이다. 특히 이 문항의 경우 글쓴이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내용 일치 유형의 경우 정답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1문단에서 '책은 벗'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는 현재 독서 환경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문단에서 독서는 필자를 읽고, 필자의 시대를 읽고, 독자 자신을 읽어서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독서가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벗'은 책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지, 벗과의 독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시대와 불화한 독자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제시문은 독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교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7. 정답 ②

출제 영역 어문규정 - 띄어쓰기(한 단어 띄어쓰기)

해설 최근 띄어쓰기 출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한 단어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이해만으로 해결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한 단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옛 책’은 관형사 ‘옛’과 명사 ‘책’ 각각의 단어로 구성된 표현으로 한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그중: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 ③ 한번: 기회 있는 어떤 때에. ④ 굴속: 굴의 안

참고 ※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한번 엿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 번’을 붙여 쓰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문장에서 ‘한 번’은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을일[가을릴]
- ㉡ 텃마당[툃마당]
- ㉢ 입학생[이팍생]
- ㉣ 흙먼지[흥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8. 정답 ③

출제 영역 문법 - 음운의 변동

해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단순히 음운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의 변동 결과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동으로 인해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 않는지, 음운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입학생’은 축약과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서 [이팍생]으로 발음한다. 축약으로 인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을일’은 ‘ㄴ’첨가 현상과 유음화로 인해 [가을릴]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② ‘텃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툃마당]이 된 후 비음화에 의해 [툃마당]으로 발음한다. ‘ㄴ’은 치조음에 비음이고, ‘ㅁ’은 순음에 비음이므로, 조음 방법은 같지만 조음 위치는 같지 않다. ④ ‘흙먼지’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흥먼지]가 된 후 비음화에 의해 [흥먼지]로 발음한다. 선택지의 설명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흙먼지’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한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

부'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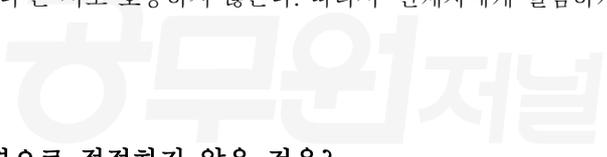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9. 정답 ①

출제 영역 어문규정 - 올바른 문장 쓰기

해설 올바른 문장 쓰기 학습의 경우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는 이유에 대한 파악 또한 필요하다. '접수되다'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가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로 이미 그러한 상태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와 같이 써도 어색하지 않으므로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접수되다'는 '...에/에게 접수되다'처럼 쓰이고, '우선하다'는 '...보다/...에 우선하다'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기관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그에 우선한다'가 가장 적절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과업 지시서 교부'가 서술어에서 '교부하다'로 다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의 것을 삭제하여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처럼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제외되다'는 '...가 ...에서 제외되다'의 형태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앞에 목적어를 넣어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처럼 쓰는 것은 어색하다. '제외하다'의 경우는 '...을 ...에서 제외하다'처럼 쓰므로 앞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따라서 '해안선에서 ~ 수역을 제외한 상태에서'처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열람하다'는 '...가 ...을 열람하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에게'와 '열람하다'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처럼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1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퐁 잇네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p> <p style="text-align: right;">- 이황</p>
<p>(나) 술은 어이흐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흐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흐리러</p> <p style="text-align: right;">- 윤선도, <초연곡></p>
<p>(다) 우레긋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긋치 번뜻 만나 비긋치 오락가락 구름긋치 헤여지니 흉중(胸中)에 브름긋튼 혼숨이 안기 피듯 흐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작가 미상</p>
<p>(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우웁이 정 우웁가 하 어척 업서셔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늬 옷디들 말구려 아귀 찍여디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 권섭의 시조</p>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긋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10. 정답 ②

출제 영역 문학 - 고전시가(복합 지문)

해설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 중의 하나로, 문학을 복합 지문화해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다.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의 경우 복합 지문 형태이긴 하지만 개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므로 개별 작품 감상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나) 작품은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초장과 중장에서 대구법이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고인(古人) 묻 뵈 → 고인(古人)을 묻 뵈도, 너던 길 알픽 잇네 → 너던 길 알픽 잇거든’과 같은 연쇄법을 사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며 학문 수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긋치’의 반복 사용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벗님네 웃디들 말구려 아귀 찍여디리라(벗님네들이여, 웃지를 말구려. 아귀가 찢어질지도 모르니)’를 통해 화자는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현대어 풀이]

(가)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었으니
고인을 못 뵈었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늘 아니 가고 어쩔꼬

(나) 술은 어이하여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여 맛이 좋은가? 소금을 타서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다)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라) 하하 허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웃네.
벗님네들이여, 웃지를 말구려. 아귀가 찢어질지도 모르니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체가 살아 있다.

11. 정답 ③

출제 영역 어휘 - 다의어

해설 ㉔에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와 같은 문장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선택지에 제시된 문장은 “사람이나 사물의 기세, 기운 따위가 뚜렷이 나타난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예문들이다.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갓거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12. 정답 ①

출제 영역 비문학 - 화법

해설 대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다. 정확한 독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진행자는 마지막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홍 교수가 “전체 교통사고 대비 ~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진행자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라고 해석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라며 홍 교수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를 통해 홍 교수에게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13. 정답 ④

출제 영역 비문학 - 독해(제목 파악)

해설 제시문의 제목을 찾는 유형이다.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 화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 화제에 대한 특징과 입장을 파악하면 된다. 제시문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음을 밝히며 ‘헤겔’과 ‘다윈’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한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목은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적절하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公卿)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컹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버지께 간

(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붕우(朋友) 서로 책(責)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비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흡족해 하고 있다.

14. 정답 ③

출제 영역 문학 - 고전소설(내용 파악)

해설 고전 소설인 <사씨남정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읽기가 이루어지면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고전 소설의 경우 문어체를 쓰며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기 때문에 반복적 읽기를 통해 고전 소설 지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유 소사가 ‘장부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라?’라고 질문하자 사씨는 ‘어찌 부부라고 간쟁(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함)치 않으리이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씨는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씨의 어머니가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사씨는 자신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는 않다. ④ 유 소사는 사씨가 덕망이 높음을 칭찬하고 있지만, 사씨의 효성이 지극함을 흡족해하고 있는지는 않다.

참고 ※ 김만중, <사씨남정기>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선인인 사씨와 악인인 교씨를 등장시켜 처첩 간의 갈등을 보여 주는 고전 소설이다.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행실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한 처벌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정실 부인인 사씨를 덕이 있고 고매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첩인 교씨를 간사하고 영악한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첩실을 허용하는 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여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무능한 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조선 후기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담고 있다.
- 주제: 사 씨의 덕행에 대한 칭송과 악행을 저지른 교 씨에 대한 징벌. 사필귀정(事必歸正)
- 전체 줄거리: 유연수는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장원 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제수 받는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 씨와 결혼하나 늦도록 후사가 없어 교 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교 씨는 천성이 간악한 인물로 아들을 낳자 정실이 되기 위해 사 씨를 참소한다. 결국 유 한림은 사 씨를 폐출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교 씨는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참소하여 유배시킨다. 이후 유 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리자, 조정에서는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유 한림은 사방으로 사 씨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듣고 온 사 씨와 해후한다. 유 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꽝 당 꽝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밑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겍게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이 것이었다.

꽝 당 꽝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꽝 당 꽝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책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꽝 당 꽝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15. 정답 ④

출제 영역 문학 - 현대 소설(소재 의미와 기능 파악)

해설 작품에서 사용된 소재인 ‘소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맥을 통해 소재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는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여운’은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며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늙은 나무들이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조용하고 썰렁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꽝 당 꽝 당’은 쭈시는 구석이 있어 신경을 자극하며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③ ‘단조로운 소리’의 반복을 통해 그 소리가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을 통해 모종의 의미가 부여됨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

• 해제: 이 작품은 월남할 때 두고 온 딸을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무

력해져 가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산가족의 깊은 슬픔을 보여 준다. 끊임없이 들리는 쇠붙이 두드리는 리는 분단의 비극이 가져다준 한 가정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한다. 만딸에 대한 기다림은 아버지에게는 실한 그리움을 의미 하지만 다른 가족에게는 타성에 젖어드는 습관적 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기다림이 속되면서 마모되어 가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닿아지는 살들’이란 제목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전쟁이 가져다 준 분단의 아픔과 상처
- 전체 줄거리: 오월 어느 날, 오늘도 아버지와 정애, 영희가 북에 남아 있어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만딸을 기다리고 있다. 반 백치인 아버지가 밤 열두 시에 만딸이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층에서 내려온 성식이 신문을 보면서 영희와 가시 돌린 대화를 하고 만취한 선재가 들어온다. 가족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시계가 열두 시를 친다. 그때 북도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기묘한 웃음을 띤 식모가 나타난다. 영희는 식모를 가리키며 언니가 왔다고 소리치고 늙은 주인은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허우적거린다. ‘꽝 당 꽝 당.’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진다.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부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걸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영화 <일 포스티노> 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 ② 영화 <일 포스티노> 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 를 참고할 만하다.
-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 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6. 정답 ②

출제 영역 비문학 - 독해(내용 파악)

해설 독해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다. 꼼꼼한 독해를 통해 선택지를 잘못 파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문학 독해의 내용 파악은 정답이 지문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문단에서 글쓴이는, <일 포스티노> 에 등장하는 마리오 루폴로라는 인물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장면을 시의 은유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영화의 인물이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② 韋編三絶 ③ 天衣無縫 ④ 莫無可奈

17. 정답 ③

출제 영역 어휘 - 한자성어

해설 문맥에 적절한 한자성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은 한자성어를 출제할 때 우리말 독음 없이 출제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자성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답다'를 통해 문맥적으로 빈칸에는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답으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인 '천의무봉(天衣無縫 - 하늘 천, 옷 의, 엮을 무, 꿰맬 봉)'을 넣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화조월석(花朝月夕 - 꽃 화, 아침 조, 달 월, 저녁 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라는 뜻으로,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음력 2월 보름과 8월 보름 ② 위편삼절(韋編三絶 - 가죽 위, 엮을 편, 석 삼, 끊을 절):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④ 막무가내(莫無可奈 - 엮을 막, 엮을 무, 옳을 가, 어찌 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18. 정답 ①

출제 영역 어휘 - 한자어

해설 공무원 시험 유형 중 가장 어려운 유형이 아닐까 한다. 한자성어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 있지만, 한자어는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상시 지문을 읽을 때 주요 어휘를 한자로 바꿔보는 연습을 좋은 훈련법이 될 것이다. 유명세(有名稅 - 있을 유, 이름 명, 세금 세):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오답 풀이 ② 복불복(福不福 - 복 복, 아니 불, 복 복):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③ 대증요법(對症療法 - 대할 대, 증세 증, 병고칠 요, 법 법):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열이 높을 때에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따위가 이에 속한다. ④ 경위(경서 경, 씨 위): 「1」 직물(織物)의 날과 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3」 『지구』 경도와 위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4」 『지구』 경선과 위선을 아울러 이르는 말.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

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 정답 ④

출제 영역 비문학 - 독해(추론)

해설 독해의 추론 유형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시문의 마지막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를 통해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하자는 내용을 옳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문의 첫 문장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2문단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③ 2문단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원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인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이다.

20. 정답 ③

출제 영역 비문학 - 독해(글쓴이의 입장 파악)

해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유형이다. 단순한 내용 일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문단에서 글쓴이는,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효라는 것이 유교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입장과 부합한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을 통해 효가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설명은 파악할 수 있지만 글쓴이는 효가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효가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라는 내용은 글쓴이의 입장이 아니다. ② '효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는 생각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명령이라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효라는 글쓴이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제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